

살롬!

무더운 여름이 지나 어느새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시길 기도하며, 저희 가정과 사역 소식을 전합니다.

가족 소식

아이들이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영조는 헝가리에서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여 차근차근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 후 처음으로 독립된 생활을 경험했고, 감사하게도 학교와 일상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 한 인교회를 다니며 청년부 모임에도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두 아이들도 새 학기를 맞아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역 소식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요르단에서 추방당했던 아부압달라 방문 이후에 마하 자매가 레바논에서 비자 문제로 잠시 요르단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아부 압달라가 레바논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비자를 받고 돌아갔고, 이어서 아내 마하와 막내딸도 레바논 거주 비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추방된 지 10여 년 만에 고국을 밟았으나, 최근 레바논 당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아 현재 현지 교회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원 형제는 기존 사역지 외에도 다른 현지 태권도 도장에서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지 관장이 매우 기뻐하며 매일 수업을 요청하고 있고, 한국식 정통 태권도 프로그램을 배우려는 다른 사범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와흐닷트 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 못했지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곳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마하와 막내딸의 비자 프로세스가 무사히 잘 진행되어 레바논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2. 새로 관계를 맺게 된 현지 체육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3. 첫째 영조가 학업과 독립된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4. 아이들의 학비도 잘 채워질수